

Question! 청소년을 위한 가톨릭 성교육

이성웅 세례자 요한 신부

Q. 독신과 성(性)

신부님, 모든 사람은 성적인 존재로 살아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어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신부님과 수녀님에게 성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분들의 삶은 성을 주신 하느님의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인간은 성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성적 욕망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독신으로 사는 신부님과 수녀님한테는 이러한 것들이 불필요한 것은 아닌지도 궁금해요.

A.

세상에는 하늘 나라 때문에 스스로 독신의 삶을 선택한 이들이 참 많습니다. 교황님을 비롯하여 많은 성직자 분들이 그러합니다. 봉헌 생활을 하시는 수도자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삶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하지 않다고 해서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을 만드신 하느님의 계획에 위배된다고도 볼 수 없습니다.

마태오복음 19장 1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 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독신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긴 성경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늘 나라 때문에 고자가 된 이’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본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생식과 출산이 아닌 동정(독신)의 삶이 존재할 수 있다고 선포하셨고, 본인이 먼저 그 본보기를 보여 주신 것입니다. 이 독신의 삶은 어떠한 장애나 결핍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곧 인간의 자유롭고 인격적이며 자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하늘 나라’라는 가치를 위해 존재할 수 있는 삶의 방식인 것이지요.





바리새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마태 19, 3)라고 묻습니다. 이어서 모세의 권위를 빌려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 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마태 19, 7)”라고도 질문합니다.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마태 19, 8). 여기에서 우리는 ‘처음부터’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을 처음에 만드신 하느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남성과 여성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이루는 사랑의 삶, ‘혼인’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그 사랑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혼인의 배타성’이라 합니다. 쉽게 말해 세 명이 결혼한다거나,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아내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을 그 어떤 것도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혼인의 불가해소성’이라 합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하느님께서 태초에 성을 만드신 목적은 그것을 통하여 남자와 여자가 영원한 사랑의 일치를 이루게 하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독신과 정결의 삶은 어떤 의미를 지닐까요? 바로, 태초에 하느님께서 만드신 성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가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아진다”(마태 22, 30).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부활의 삶에 참여합니다. 부활의 삶을 위해 하늘 나라로 간 우리는 혼인을 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1코린 15, 28)이 되시고, 우리는 주님과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신의 삶을 사는 사제와 수도자들은 혼인하지 않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저 세상, 바로 하늘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신과 정결의 삶은 종말론적인 신분을 이 세상에 미리 드러내는 카리스마적인 은총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부활한 몸으로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신랑이신 그분과 이루게 될 완전한 친교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독신을 살아가는 사제와 수도자는 이 완전한 친교의 삶을 미리 앞당겨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성을 주셨습니다. 독신 생활을 하는 분들은 결코 사랑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의 열망을 가지고 신랑이신 주님을 마중 나갑니다(마태 25, 6 참조). 혼인을 한 부부는 사랑을 나눔으로써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는 바로 사랑스러운 자녀들입니다.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제와 수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축성된 생활을 통해 교회는 풍요로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신부님과 수녀님은 남자와 여자라는 각자의 고유한 성을 가지고 하느님과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풍성한 결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의 육체적인 측면만을 바라보고서 독신인 이들의 성은 무의미하다고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독신 생활은 성적 욕구를 억압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무의식 안에 축적되어 건강하지 않은 긴장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독신은 성적인 욕구를 억압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늘 나라를 위해 스스로 독신을 선택한 이들의 성적 에너지는 승화 과정을 거쳐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쓰입니다. 사랑과 헌신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독신의 삶은 성의 완성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 삶의 완성이 이루어질 하느님과의 일치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성웅 세례자 요한 신부

대구대교구 소속 사제. 신학생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2011년에 미국 오하이오주에 있는 St. Mary Seminary and Graduate School of Theology를 졸업하고(석사) 사제 서품을 받았다. 그 이후 수학을 계속하여 사목 신학을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구대교구 4대리구에서 청년·청소년 사목을 담당하고 있으며, 틴스타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

